

2025년 11월 4일 공보 2025-11-12호

보도자료

이 자료는 11월 5일(수) 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방송/인터넷 매체는 11월
4일(화) 14:00 이후부터 취급 가능

제 목 : 한국은행·한국금융연구원, 단기금융시장 발전 및
KOFR 활성화를 위한 공동 컨퍼런스 개최

□ 한국은행과 한국금융연구원은 11월 4일(화) 「단기금융시장 발전 및
KOFR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공동 컨퍼런스를 개최

*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의 개회사, 한국금융연구원 이항용 원장의 환영사,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의 축사가 있었으며, 이후 발표와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

□ 동 컨퍼런스에서는 KOFR 확산 및 시장 정착을 위한 추진 과제를 살펴보고
Repo시장의 안정성 평가와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국내 단기금융
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한국은행 공개시장운영의 역할을 모색

※ 컨퍼런스 개회사·환영사·축사 메시지 및 발표 주요 내용, 세부 프로그램은 <붙임> 참조

문의처 :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자금시장팀 팀장 한민, 과장 장윤경,
시장연구팀 팀장 최지연, 과장 우한솔
Tel : 759-4473, 4582, 5614, 5615 E-mail : bokmmt@bok.or.kr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 연구위원 김남종
Tel : 3705-6320, 6266
공보관 : Tel (02) 759-4135, 4022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 차례 >

1. 컨퍼런스 메시지 주요 내용	1
2. 컨퍼런스 발표 주요 내용	2
<발표1> “KOFR 활성화 추진경과 및 확산을 위한 주요 추진 과제” 한민,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자금시장팀장	
<발표2> “국내 Repo시장 안정성 평가와 제도개선 방향” 김남종,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 연구위원	
<발표3> “단기금융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공개시장운영의 역할” 우한솔,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시장연구팀 과장	
3. 컨퍼런스 프로그램	8

- 이창용 총재는 개회사에서 “금번 컨퍼런스를 통해 KOFR 확산의 속도와 신뢰를 높이는 실질적 해법, Repo시장 제도개선 방향, 한국은행 공개시장운영의 역할에 대해 폭넓게 논의되길 바라며, 이를 발판으로 우리 단기금융시장의 구조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 KOFR가 우리 금융시장의 준거금리로 성공적으로 정착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언급하고,

“특히 WGBI 편입 등 도약의 기회를 앞두고 지표금리체계의 발전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투자유인을 제고하고 우리 금융시장의 국제적 신뢰도를 높일 준비를 서둘러야 하며, 한국은행도 정책적 지원과 제도마련을 지속하겠다”고 강조
- 이항용 원장은 환영사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 (“world’s most important number”)로 불렸던 LIBOR의 강제 종료는 정책당국과 시장참가자들이 합심하여 거대한 체제 이전을 이뤄내게 하는 강력한 기제가 되었다며, 작년부터 KOFR 확산 작업을 본격화한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의 리더십과, 이에 전심전력으로 호응해주고 계신 시장참가자 분들의 노고를 높이 평가한다”고 언급하면서,

“KOFR의 산출 시장이자 금융업권 단기자금 조달의 핵심축인 Repo시장의 질적 수준을 제고해 금융시장의 장기적인 안정을 도모하고 KOFR 활성화를 기저에서부터 뒷받침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당부
- 권대영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향후 지표금리의 신뢰도를 신속하게 높이면서, 그 과정에서 시장이 받는 충격은 최소화하고 금융소비자에게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으며 ^①우선적으로 파생상품시장과 채권시장의 KOFR 활용속도를 가속화해 나가고, ^②대출시장에서도 KOFR가 사용될 수 있도록 단계적인 도입방안을 금융권과 고민하는 한편 ^③CD금리를 시장의 신뢰도가 높은 지표금리로 대체하는 개혁작업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언급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지표금리 개혁을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

KOFR 활성화 추진경과 및 확산을 위한 주요 추진 과제

1. KOFR 활성화 추진 경과 및 거래 현황

- 지표금리 전환을 위한 3단계 전략*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를 합의·공표('24.8월)한 후 워킹그룹 논의를 통해 각 시장별 활성화 과제를 추진해옴

* KOFR 확산을 위한 기술적 기반 조성 → 확산전략을 통한 KOFR 점유율 확대 → KOFR로의 지표금리 전환(CD금리 중요지표에서 해제)

- KOFR-OIS(Overnight Index Swap) 거래표준안, KOFR-FRN(변동금리부채권) 발행 컨벤션 및 회계·평가방식 등을 협의하고 거래시스템, 정보제공시스템, 선물 시장조성자제도 등 거래에 필요한 기술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상당 부분 완료

— 특히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KOFR-OIS 중앙청산 도입 등을 협의하였으며, 10월 27일부터 동 서비스가 개시

— 「ISDA 금리파생상품 정의서 및 협약서」에 'CD수익률 기반으로 체결되는 장외파생상품의 비상시 대체지표를 KOFR로 일원화' 하는 내용을 반영(9.27일) 하여 CD수익률 계약을 KOFR 준거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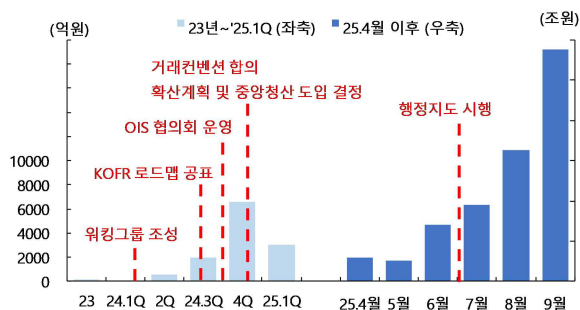
- 이와 함께 '이자율스왑거래중 KOFR-OIS의 목표비중(현 10% 이상)을 권고하는 행정지도', '은행권 KOFR-FRN 발행협약',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선정시 KOFR 거래실적 반영' 등의 KOFR 거래 확산전략을 시행중

— KOFR-선물 거래소 수수료 면제, KOFR-OIS 청산수수료 면제 등의 인센티브와 글로벌 금융기관 대상 KOFR 전환 설명 로드쇼 등 홍보활동도 지속

- 이에 따라 KOFR-OIS 및 KOFR-FRN 거래 규모가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등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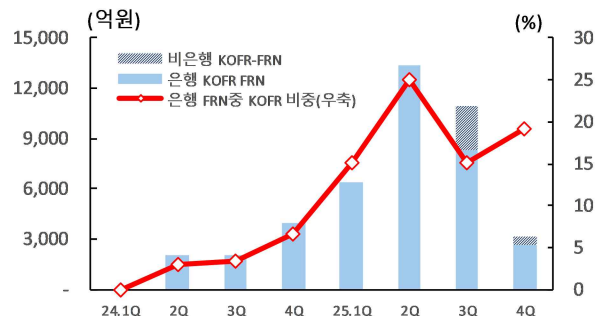
- KOFR-OIS 거래는 전년대비 약 70배, KOFR-FRN 발행은 약 3배 증가

KOFR-OIS 거래규모 추이



자료: 한국거래소 거래정보저장소(TR) 기준

KOFR-FRN 발행규모 추이



자료: 인포맥스

2. 향후 주요 추진과제

(1) 확산전략 강화

- ☐ KOFR-OIS 행정지도 강화, KOFR 준거 파생거래 수요 확대 방안 모색을 통해 KOFR 전환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
 - 연차별 거래비중 목표 상향조정, 단계적 **KOFR-First Initiative** 채택 및 만기별 목표의무 부과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KOFR-OIS 거래비중을 제고하고 다양한 만기별 거래를 유도할 필요
- ☐ KOFR-FRN 발행 협약 강화, 발행·투자 인센티브 제공, KOFR 대출 금리산정 방식 권고, **Term-KOFR** 개발 등을 통해 KOFR-FRN, KOFR 대출 등 준거 현물거래 확산을 추진
 - 특히 KOFR 대출상품의 경우 초기에는 일반소비자의 수용성이 높고 운용이 용이한 과거평균 KOFR 적용방식의 대출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추후 Term-KOFR 산출이 가능해질 경우 Term-KOFR 활용방식을 권고

(2) 지표금리체계에 대한 정책로드맵 확정

- ☐ 시장참가자들은 KOFR 활용 확대 등 지표금리전환을 위해서는 CD수익률의 중요지표 해제가 긴요하다는 의견
 - 정책로드맵 확정과 관련하여 시장 의견을 조사한 결과 CD수익률이 중요지표에서 해제될 경우 신규거래시 이자율스왑 및 FRN 부문에서는 70%, 대출상품에서는 50% 이상이 KOFR로 전환하겠다고 응답
 - 특히 CD수익률의 공식적 산출·고시 중단 여부가 KOFR로의 전환가능성에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 ☐ 한국은행은 향후 워킹그룹 논의를 통해 KOFR 거래 유동성 확대 및 기존 CD수익률 거래의 안정적 전환에 필요한 기간, Term-KOFR 산출 가능 시점 등 CD수익률 산출·고시 중단을 위한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CD수익률 중요지표 해제에 대한 시장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음

(3) 글로벌 금융시장의 KOFR 거래기반 마련

- ☐ 글로벌 시장의 ND KOFR-OIS 중앙청산 도입 추진 등을 통해 ND CD-IRS 시장을 KOFR 준거로 전환 추진
 - 또한 EU의 지표금리 동등성 평가 등 국제적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역외기관의 KOFR 선물 거래 확대 등을 위해 LCH, ISDA 등 글로벌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

국내 Repo시장 안정성 평가와 제도개선 방향

1. 국내 Repo시장 현황과 평가

(현황)

- ☐ 우리나라의 Repo시장은 2010년대 금융당국의 제도개혁에 힘입어 단기자금 시장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였고, 최근까지 가파른 속도로 성장 중
 - 콜시장의 제2금융권 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제도개혁으로 단기자금 시장이 Repo시장 중심으로 재편
 - Repo시장은 최근 5년간 일평균 잔액이 2배 넘게 증가하는 등 가파른 속도의 성장세를 지속

(평가)

- ☐ Repo시장은 금융안정 측면에서 시스템적 중요성이 큰 시장
 - 증권담보를 통한 타 시장과의 연계성이 높아 단기자금 차환 위험이 위기로 확산 (Repo Run)되는 경로가 될 수 있음
- ☐ 우리나라의 무위험지표금리(RFR)인 KOFR금리의 산출시장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확대
 - 콜시장으로부터의 거래수요 이전으로 높은 금융업권 대표성을 보유
 - 글로벌 지표개혁의 가장 중요한 기준인 풍부한 기초거래량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RFR 산출시장으로서의 장점이 명확
- ☐ 콜금리에 비해 변동성이 높다는 지적이 존재
 - RFR 선정 과정에서 비교 대상이었던 콜금리에 비해 금리 수준과 변동성이 높으며, 급등락(spike)이 자주 발행한다는 지적이 존재
- ☐ Repo금리의 적절한 변동성은 시장효율성이나 파생상품 수요 창출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지만, 금융안정과 지표금리 산출 기반 강화를 위해 시장마찰적 요인에 의한 변동성에 대해서는 완화시켜 나갈 필요

2. 국내 Repo시장 변동요인

- ☐ 우리나라의 Repo금리는 매수-매도 업권에 따른 편차가 뚜렷
 - 콜시장이나 해외의 주요 RFR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달러간 거래 및 은행 차입 거래가 거의 부재

- 신용도가 다양한 자금잉여업권과 자금부족업권이 직접적으로 Repo거래에 참여하는 단일화된 시장으로, 고유동성 안전자산 담보 거래에도 거래상대방 위험이 상당 부분 금리에 반영
- 월말, 분기말, 연말 수급여건 악화로 인해 주기적으로 Repo금리가 급격히 상승하고, 변동성이 확대
 - 특히 분기말의 경우 법인세 납부 등에 의해 MMF와 신탁 잔고가 감소하면서 전체적인 자금 공급이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보수적 성향을 가진 은행의 매수 비중이 증가하면서 금리가 상당폭 상승
- 은행의 지급준비금 마감일 근방에도 Repo시장의 수급여건이 경색되면서 금리의 변동성이 확대
 - 은행의 지준마감일 및 직전 영업일에 은행의 Repo매수가 급감하고, 전체적인 거래가 위축되면서 일중변동성이 확대
- 이러한 시장마찰적인 금리 변동은 Repo시장 충격의 확산 및 증폭 기제로 작용할 가능성

3. 정책적 시사점 및 제도개선 방향

- 한국은행의 양방향 Repo 매매 정례화는 일정 부분 수급마찰을 풀어줄 것으로 기대
 - 장기간 양적완화의 결과로 풍부한 지준체계(ample reserves system)를 운용함으로써 단기자금시장의 수급부담이 완화된 해외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타이트한 지준체계를 운용
- 금융안정 및 지표금리 산출 기반 개선을 위해 중앙청산소(CCP)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
 - 거래참가자 비용 증대, 집중화 리스크 등 CCP의 잠재적인 단점에 대해서도 논의 필요
 - 그러나 CCP는 위기 시 안정화 기능 제고, 결제유동성 감축 등과 같은 장점이 있고, 금리에 거래상대방 위험이 반영되는 정도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Repo 거래데이터에 대한 세분화 및 접근성 제고 노력이 필요
 - 자산운용사, 신탁 등의 세분화 정도를 높이고, 주요 투자주체들의 레버리지 및 자금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

단기금융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공개시장운영의 역할

1. 공개시장운영이 걸어온 길

- 한국은행은 실효성, 효율성, 상호성이라는 3대 일반원칙을 기반으로 공개시장 운영을 수행함으로써 통화정책 결정이 금융시장을 통해 국민경제 전체로 효과적으로 파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음
 - 1998년 금리 중심의 통화정책 운영 방식이 채택된 이후 시장원리에 입각한 공개시장운영이 통화정책 수단으로 활발히 활용되기 시작하였으며, 2008년 통화정책 운영체계 개편을 통해 '한국은행 기준금리' 도입, RP매각 정례화, 자금조정대출 및 예금 신설 등 금리상하한체계(corridor system)의 기틀이 마련
 - 이후 한국은행은 공개시장운영 제도를 시장친화적으로 개선하는 가운데 시장불안 시 다양한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시에 시행함으로써 단기금융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해 옴

2. 공개시장운영의 여건 변화

- 단기금융시장 내에서 비은행금융기관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거래 비중도 확대되면서 유동성 수준 및 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음
 - 리스크 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비은행 부문에서 대규모 예금인출 등 충격 발생시 그 영향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증대
- RP시장 규모가 급격히 커지면서 RP금리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콜금리에 미치는 영향도 점증하고 있으며, 증권사의 단기시장성 차입이 늘어나고 MMF 수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등 자금조달 및 운용이 단기화 흐름을 보이고 있음
 - 향후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단기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

3. 최근 공개시장운영 제도 개편 현황

(1)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확대(2024년 7월)

- 한국은행은 비은행금융기관의 통화정책 파급경로에 미치는 영향력 증대를 반영하여 2024년 7월 자산운용사 및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를 대상기관으로 편입

- 이 과정에서 재무건전성 지표를 포함하여 대상기관을 평가·선정하고 RP매입시 증거금률을 차등으로 적용하는 등 다양한 리스크 관리 조치를 마련하였으며, 일부 비은행기관을 대상으로 모의 유동성공급 테스트를 실시
- 대상기관 확대는 공개시장운형을 통한 유동성 흡수 및 공급의 실효성을 증진시켜 단기시장금리 변동성의 과도한 확대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
-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들이 상시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중앙은행과의 거래에 대한 비은행 부문의 준비도(operational readiness)도 향상

(2) 양방향 RP매매 시행(2025년 7월)

- 유동성 수급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변동성이 확대되는 데 대응하여 RP매각과 RP매입을 매주 정례 실시하는 양방향 RP매매 체제로 전환
- 양방향 RP매매 시행 이후 유동성 수급 전망의 불확실성이 축소되면서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운용 여건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이는 콜금리와 RP금리의 변동성 감소로 이어짐
- 한편 RP매입 정례화에 따라 RP매입에 대한 참여도가 높아지고 낙찰 주체도 다양화되는 등 시장기반이 강화되는 모습

(3) 주요국 공개시장운영 제도와의 비교

- 글로벌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은행은 금융시장의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공개시장운영 제도를 선도적으로 개선해나가고 있음
- 양방향 RP매매를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공개시장운영 방식은 전세계적으로 사례가 많지 않으며, 대상기관(거래상대방) 측면에서도 비은행 부문을 넓게 포함하고 있어 주요국 중앙은행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음

4. 공개시장운영이 나아갈 길

- (유동성 공급 경로의 유효성 검토) 정례 RP매입이 의도한 효과를 가져오는지 점검하는 가운데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 수단 확충 필요성, 대상기관의 최적 범위(업권, 기관 수 등)에 대하여 검토
- (통화안정증권의 활용도 제고) 통화안정증권이 무위험채권으로서 금융시장 내에서 담당하고 있는 다양한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통화안정증권 발행잔액을 현재 수준보다 점차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운용
- (KOFR의 역할 점검) 핵심적인 단기시장금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KOFR를 통화정책 및 공개시장운영 차원에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지에 대해 중장기적 시계에서 점검

붙임 3

컨퍼런스 프로그램

- ☐ 일시 : 2025. 11. 4(화), 14:00~17:00
- ☐ 장소 : 한국은행 별관 2층 다목적 컨퍼런스홀
- ☐ 세부 프로그램

시 간	일 정			
14:00~14:20	개회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환영사	이항용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축 사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14:20~15:30	제1세션 (주제발표)	① KOFR 활성화 추진경과 및 확산을 위한 주요 추진 과제 (한민,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자금시장팀장)		
		② 국내 Repo시장 안정성 평가와 제도개선 방향 (김남종,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 연구위원)		
		③ 단기금융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공개시장운영의 역할 (우한솔,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시장연구팀 과장)		
15:30 ~ 15:50	휴 식			
15:50 ~ 16:50	제2세션 (패널토론)	사회자	박기영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前 금융통화위원)	
		토론자	공대희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공개시장부장	
			박종현 하나은행 자금시장운용부장	
			윤선중 중요지표(CD금리) 관리위원회 위원(동국대 교수)	
			이인욱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장	
			임순영 한국거래소 증권·파생상품 연구센터 박사	
			전일우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담보부장	
16:50 ~ 17:00	Wrap-up 및 폐회			